

# 原子力技術의 平和的 利用은 人類의 遺産



내외귀빈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本人은 韓國原子力産業會議와 韓國原子力學會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原子力發電所 利用率 및 安全性 確保”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에 즈음하여 致辭를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심포지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곳 대덕까지 오신 國內外的 참가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에너지의 安全供給은 경제발전과 인류의 복지향상에 필수적인 바,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化石에너지源의 부족을 극복하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석유자원이 전혀 없고 천연자원이 빈약한 韓國에 특히 심각합니다. 다행히 금년 1월말경부터 석유값이 국제적으로 하락하여, 韓國과 같은 석유 수입국에게는 경제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化石에너지源의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科學技術政策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술개발은 原子力의 技術自立을 통한 韓國 經濟發展이라는 가장 중요한 政策目標中的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原子力發電技術을 자립하고자, 韓國은 國內의 원자력 관련 기관이 최대한으로 참여하여 NSSF技術, 核燃料 設計 및 多目的研究爐 設計技術과 같은 核心分野의 技術自立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原子力技術을 平和的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遺産이라고 믿읍니다.

原子力の 혜택은 그것을 이용할 필요성과 능력이 있는 어떤 나라라도 충분히 정당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原子力の 技術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국가간의 공동번영과 이익을 위하여 原子力技術과 經驗의 交流가 특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韓國의 原子力프로그램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原子力發電所 제 1 호기가 1978년에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성공된 바 있으며, '86년 5월 1일 현재 5기가 상업운전중이며 4기가 건설중에 있고, 후속원전 2기가 입찰평가중에 있습니다. 稼動中인 4기의 지난 1년간의 稼動率은 78%가 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 3호기의 稼動率은 94.4%나 되었으며, 이는 세계에서 稼動中인 모든 발전소중 5번째로 높은 稼動率이었습니다.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原子力の 安全性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의 礎石이라고 믿읍니다.

따라서, 韓國은 原子力 安全性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原子力事故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原子力프로그램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최근 소련의 체르노빌 原電事故의 경우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原子力分野의 국제적협력은 특히 인접한 국가사이에 정보 및 기술전문가 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계속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原子力發電所 利用率 및 安全性 確保”에 관한 이번 심포지움은 석유공급이 호조를 보이는 이때에, 우리나라 原子力發電 技術開發의 요람지인 韓國에너지研究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움이 성공적으로 開催되어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科學技術處 長官      全 學 濟